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 재선임

협회(회장 이영남)는 2월 21일 한국기술센터 기술인클럽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영남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선임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영남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여성벤처협회를 이끌게 된다.

이영남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난 임기 중 주요사업인 여성전문 펀드의 활성화와 여성벤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협회 이미지 재고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및 회원서비스의 내실화를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은 물론 비영리단체이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협회 및 회원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거듭난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2002년도 결산(안), 2003년도 신규 사업계획, 2003년도 예산(안)등을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협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KOVWA 이랜서 공식 첫모임 - 여성 CEO 와의 만남 -

협회에서는 2002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 이랜서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씨앤에스 김태희 대표를 초청하여 성공적인 이랜서로서의 긍지와 위상 확립을 위한 수료자들 첫모임을 가졌다.



이랜서(e-lancer)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주자의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창의력과 변화를 중요시하는 21세기 정보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IT분야를 비롯한 컨설팅, 시장조사, 번역, 창업상담, 각종 설계 등 전문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링크리소스의 발표에 따르면 독립근로자의 숫자가 2001년 현재 36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재택근무의 대중화, 온라인 가상기업 양산 등으로 전문 이랜서(e-lancer)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또, 여성과 젊은 인재 등을 중심으로한 이랜서(e-lancer)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공급 체제와 교육 시스템은 미비하여 체계적인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이랜서(e-lancer) 활동은 잠재되어 있는 국가적 낭비를 해소하고, 인력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회원사 소식 ■

디자인스툼, IT 불모지 미얀마 개척에 성공

e비즈니스 통합업체인 디자인스툼(대표 손정숙)은 미얀마 최대 포털사이트 바간넷(www.bagan.net.mm)을 오픈 했다. 동남아 국가 중에 IT 불모지에 속하는 미얀마에 한국의 기술력으로 이루어지는 첫번째 쾌거이다. 미얀마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많지 않으며 인프라 또한 낙후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기업이 주도가 돼서 IT 산업의 필요성을 역설, 투자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 시장으로서의 전망은 밝다.

바간넷 사이트는 미얀마 국민들의 사용 환경을 생각해서 모든 페이지마다 이미지 용량이나 속도를 고려하였으며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UI 및 네비게이션으로 구성하였다. 미얀마의 비전문가들도 쉽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툴을 간단하고 편리하

게 설계하였다. 미얀마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속도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플래시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한국의 IT 산업의 역사를 거울 삼아 초기의 e비즈니스 전략수립부터 미얀마의 시스템 컨설팅과 사이트 구축까지 디자인스툼이 축적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디자인스툼의 미얀마 진출로 인해 미얀마 내에서도 한국 IT 기술력을 인정 받아 전자정부 실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제 2의 도약이 기대된다.